

롤렉스부터 에르메스까지... 연초 명품 가격 줄인상

에르메스, 가방·지갑·신발 등 3~7% 올려 샤넬·티파니·루이비통도 동참할지 주목 한국 지난해 럭셔리 시장 142억달러 기록

에스위스 명품 롤렉스에 이어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가 연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네 차례나 가격을 올렸던 샤넬이 빠르면 다음 달 가격 인상엔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주요 명품 브랜드가 줄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는 가방, 지갑, 스카프, 신발 등 가격을 3~7%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앞서 1월에 5~10%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지 1년 만이다. 에르메스 본사가 있는 유럽 현지에서는 1월1일자로 가격을 조정했다. 인기가 많은 '린디26'은 981만원에서 1023만원으로 4.2% 인상됐다. '집시에르

28'은 1103만원에서 1129만원으로 2.3%, '피코탄22'는 385만원에서 411만원으로 6.7% 올랐다. 에르메스 입문백으로 알려진 '가든파티36'은 482만원에서 498만원으로 3.3% 인상했다. '피코탄18'은 354만원에서 377만원으로 6.5% 올랐다.

롤렉스는 지난 1일 주요 제품의 가격을 7~16% 인상했다. 인기 모델로 꼽히는 서브마리너 오이스터 41mm 오이스터스틸 모델 가격은 1142만원에서 1290만원으로 13% 인상했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41mm 오이스터스틸 모델은 985만원에서 1142만원으로 15.9% 올랐다.

'예물 시계'로 인기 있는 데이저스트 라



주요 명품 브랜드가 줄인상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에르메스 린디28(왼쪽)과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인도 인상됐다. 데이저스트 36mm 오이스터스틸과 옐로우 골드 모델은 1421만원에서 1532만원으로 7.8% 올랐다.

다만 롤렉스는 일부 상품은 가격을 인하했다. 데이저스트 31mm 모델의 오이스터스틸과 옐로우 골드 모델은 1818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7.6% 내렸다. 레이디 데이저스트 28mm 오이스터스틸과 옐로우 골드도 1615만원에서 1572만원으로 2.7% 내렸다.

롤렉스와 에르메스에 이어 루이비통, 샤넬, 티파니 등 주요 명품도 가격 인상엔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5

차례, 샤넬은 4차례나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배정 인상'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잦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명품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면세점이나 해외 아울렛 대신 국내 수요가 몰린 탓이다. 백화점 앞에는 개점 전부터 줄을 서서 명품 매장에 입장하는 '오픈런'이 연초 내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럭셔리 상품 시장은 세계 7위 규모로 전년 대비 4.6% 성장한 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카테고리별로 명품 의류·신발 시장이 438191억 원으로 가장 컸고, 명품 가구제품(4조1882억 원), 명품 주얼리(2조4847억 원),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2조7871억 원), 명품 시계(1조1177억 원) 순이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친환경 종이로 만든 얼음컵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도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플라스틱을 대신해 친환경 종이로 만든 얼음컵(사진)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종이 얼음컵의 기본이 되는 원지는 삼림관리협회의 회(FSC) 인증 소재를 사용했다. 100% 천연펄프에 친환경 코팅인 '솔 코트'(sole coat) 기술이 더해져 종이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재활용률은 92%에 달한다.

세븐일레븐은 레귤러 사이즈(180g, 600원)를 선보인 후 라지 사이즈로 확대 예정이다. 가맹점의 기존 재고 소진 및 현장 혼선 최소화,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 얼음컵과 병행 운영하고 종이얼음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종이얼음컵으로 완전 대체시 연간 1억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컵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승남 측식식품팀장은 "편의점 얼음컵의 친환경 종이 전환은 ESG 실천이며, 가치소비 시대를 사는 현대 소비자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탈플라스틱 이슈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샘표, 간장 가격 인상 17종 평균 8% 4년만에

샘표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사에 판매하는 간장 출고가를 최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두, 밀 등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조치로 샘표식품이 간장 출고가를 인상한 것은 2017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내 간장 업계 1위인 샘표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상 등 다른 간장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엔 나설지 주목된다.

5일 샘표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사에 판매하는 간장 17종의 출고가를 8% 가량 인상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편의점들은 지난달부터 해당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하고 있다.

손흥민, 타이거맥주 광고모델

싱가포르 브랜드, 올해 '타이거의 해' 캠페인 전개 '용맹으로 두려움 떨치고, 꿈 향해 나아가자' 메시지



90년 역사의 싱가포르 프리미엄 라거 '타이거맥주'(Tiger Beer)가 브랜드 공식 엠베서더로 글로벌 축구 스타 손흥민(29·도트넘 홋스퍼)을 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타이거맥주는 2022년 펼치는 '타이거의 해'(Year of the Tiger) 캠페인을 손흥민과 함께하기로 하고, 한국을 비롯해 3개 대륙, 9개국에서 새해의 긍정적이고 당찬 포부를 응원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사진)을 펼친다.

타이거의 해 캠페인은 호랑이 해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두려움은 떨쳐 버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설파한다.

손흥민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nglish Premier League, EPL)에서 8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유럽 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Europa Conference League)를 포함하면 9골 4도움을 달리고 있다.

타이거맥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손흥민이 타이거의 해 캠페인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파트너 모습이기 때문이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타이거맥주 손 오도널 글로벌 브랜드 이사는 "손흥민은 열대 지방에서 맥주를 만든다는 대단한 도전으로 탄생한 타이거맥주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글로벌 아이콘이다"며 "호랑이 해를 맞이해 많은 사람이 두려움 없고, 가능성에 한계가 없는 자신의 모습인 '타이거'(Tiger)를 꺼내 꿈을 이루는 도전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권했다.

손흥민은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타이거의 해 캠페인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한 도전 정신으로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호랑이처럼 모두가 꿈을 이루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다.

손흥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의미하는 3개 이모지를 살짝 공개하며 타이거맥주 엠베서더로서 첫 행보를 보였다.

이는 엠베서더 손흥민을 리더로 한 타이거맥주 SNS 바이럴 캠페인인 '나의 해, 나의 목표(My Year, My Goals)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타터 챌린지 일환이다.



"배달아저씨 마음껏 통화하세요"

바로고, 전용 알뜰요금제 출시 최저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최저 2만원대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이더 전용 알뜰요금제가 나왔다.

바로고는 5일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알뜰모바일'과 제휴를 맺고 '바로고 라이더 전용 알뜰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로고 라이더 전용 알뜰요금제는 총 3가지다.

'바로고 데이터 통화 마음껏 PRO'는 월 4만900원에 하루 데이터 5GB를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후에는 5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배

달 수행을 위한 앱과 내비게이션 앱 사용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라이더도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 가능하다.

'바로고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는 월 3만3900원에 월 11GB 데이터 소진 시 하루 2GB를 제공한다. 추가 데이터 소진 후에도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PRO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대신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음성과 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한 '바로고 유심 최적 가성비' 요금제는 월 2만7500원에 월 15GB, 소진 후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두 요금제와 달리 기본 제공하는 음성·문자 서비스를 300분과 300건으로 제한을 뒀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함께 웃어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